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by Boomer's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Hyoung-H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산은 신체적 건강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국민노후보장패널, 자산, 삶의 만족도, 우울, 신체적 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on the effect of Korean boomers' assets on life satisfaction. The 5th main survey data of the National Retirement Security Panel(KReIS) were used for this purpose. As a result, first, baby boomer's asset level has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asset was able to confirm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physical health and satisfaction of life. Third,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baby boomer's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by reducing the depression of baby boomers and improving physical health.

Key Words : Baby boomer, KReIS, Assets,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hysical healt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상승

한 1955년부터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를 말하며 약 6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통계청, 201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집단을 말한다[1].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이 미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와는 다른 학력, 직업력, 경제력,

*Corresponding Author : Hyoung-Ha Lee(hhlee62@kwu.ac.kr)

Received October 2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29,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가치관 등을 배경으로 이들 세대가 가진 인적·물적 역량 측면에서 이전세대와는 큰 차이가 나는 노년기 생활방식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2]. 이러한 베이비부머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녀를 성장·교육·결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시키기 위해 자신에 대한 투자와 노후준비는 제대로 준비 안 된 “끼인 세대”라 지칭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했음에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세대로 간주되기도 한다[3]. 또한 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 발달과정상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 새로운 자아의 충동,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외부환경의 요구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갈등과 삶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우울, 불안,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4]. 또한,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이란 환경적 상황에 의하여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은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어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5].

2015년을 전후하여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또 다른 노년기를 맞이하는 현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과 정규직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길어진 노년기의 소비생활의 유지를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노동력을 재상품화해야하는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비록 베이비부머가 기존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만큼 더 길어진 은퇴 후 노년기간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일 것으로 여겨진다[6].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우울에 대한 연구,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베이비부모의 소득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수준과 삶의 질 연구[1,8],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행복감 관계 연구[9],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삶의 질 관계 연구[4,10] 등으로 베이비부머의 자산의 삶에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11]에서 베이

비부머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자산이 중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산효과이론[12]에 의하면 자산(asserts)은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만족감과 효능감을 제공하여 심리학적으로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가정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자산수준에 주목하며, 이들의 자산이 신체적 건강과 우울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자산 정도와 우울감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 자산정도과 신체적 건강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우울감,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베이비부머의 우울과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삶의만족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의 특징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과 소득중단이라는 ‘절벽 시스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지출, 교육투자, 가족부양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5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는 점이 노후 준비 부족과 맞물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다[6,13].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불리고 있는 '끼인 세대'(caught generation) 혹은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14]의 어려움에 더하여 열악한 노후보장제도라는 부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

한편, 베이비부머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축적 기회의 상실과 더불어 가족부양,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16], 생애주기 상 일하는 중년기에서 일에서 벗어나는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적 건강이 약화되는 위험신호를 자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17,18].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생애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 우울은 이들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19] 등이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지표(Senior's Living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심리적·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

삶의 만족도가 결여될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증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21,22].

2.3 자산과 삶의 만족도

자산효과이론은 Sherraden(1991)[3]에 의해 언급된 이론으로 자산이 개인의 복지에 다차원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산을 일정수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르며, 사회도 그들에게 차별적인 대응방식을 적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산의 효과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적자본과 같은 다른 자산을 증대하는 동시에, 기술습득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22]. 또한, 자산은 소득의 상실 및 파산 등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23,24], 자

아존증감이나 자아효능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24,25].

김동배 외(2009)[26]는 자산유형(자가주택소유, 기타 주택소유, 사업체소유, 예·적금보유, 저축성보험보유, 공적연금보유, 개인연금보유 등)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강소량·문상호(2011)[11]의 연구에서도 자산(거주주택소유, 부동산자산, 금융자산)과 소득(임금소득, 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영역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강소량·문상호(2016)[11]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자산(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소득)과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신체적 건강, 우울과 삶의 만족도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변수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27-29]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유재남(2019)[29]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유무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형하(2017)[2]의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있어서도 신체적 건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우울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4]. 이렇게 볼 때 우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과 아울러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 이형하(2017)[2]의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우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년 출생~1963 출생)를 대상으로 자선이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30]. 분석대상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최종 2,499명이다.

3.2 변수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주요 분석변수는 독립변수로 순자산, 매개변수로 우울과 신체적 건강상태,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분석할 것이다. 순자산은 자산(현재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부채 잔액 및 원리금 상환금)를 차감하고 남은 자산을 분석하였다. 우울감은 Radloff(1997)[31]의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변안한 조맹제, 김계희(1993)[32]의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총 6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의 신뢰도는 $\alpha=.915$ 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3차 패널데이터의 삶의 만족 척도는 '생활전반',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직업',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로 총 12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는 $\alpha=.863$ 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로 성별(남성=1, 여성=2), 연령(1955년 출생~1963출생을 만 연령으로 계산), 배우자유무(배우자 있음=1,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2), 학력(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졸업=2, 대학교졸업이상=3), 가구 소득(만원 단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우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산, 신체적 건강,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VIF) 진단 결과 1.029~1.1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과 자산변수는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인 베이비부머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성이 50.9%(1,271명), 여성은 49.1%(1,22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평균 53.57세(표준편차 2.499)이며, 최소 50세(1963년생)에서 최대 58세(1955년생)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0.4%(1,260명), 중학교 이하 29.1%(727명), 대학교 이상 20.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86.8%(2,168명), 배우자 없음 13.2%(331명)로 나타났다.

소득은 최소 0원부터 356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2.3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소득)은 최소 2.3에서 최대 12.8의 분포를

Table 1. Analysis of Subject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Frequency %, (people)			skewness	kurtosis	
	male	female				
gender	50.9%(1,271)	49.1%(1,228명)				
age range	mean 53.57 years, minimum 50 to maximum 58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or less 29.1% (727)	high school graduation 50.4% (1,260)	university or above 20.4% (510)			
marriage	Spouse 86.8%(2,168)		no spouse 13.2%(331)			
divisio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income (one million won)	0.0	356.0	22.3	25.3	3.1	25.3
income log	2.3	12.8	9.7	1.3	-1.7	4.0
assets (one million won)	0.0	6,180.0	168.5	3.0	7.2	93.9
assets log	4.61	15.6	11.2	1.8	-.8	.2
total liabilities (one million won)	0.0	950.0	19.5	63.7	6.8	66.4
total liabilities log	5.7	13.8	10.6	1.3	-.8	1.2
net assets (one million won)	0.0	6,060.0	148.8	2.0	7.7	108.7
net assets log	4.6	15.6	11.0	1.8	-.8	.2
depression	0.0	53.0	7.1	7.4	1.8	4.5
physical health	1	5	3.57	.8	-1.0	.78
life satisfaction	6.0	45.0	30.4	5.5	-.4	.2

보였으며, 평균 9.7(표준편차 25.3)로 나타났다. 자산은 최소 0원부터 6,18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68.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자산)은 최소 4.61에서 최대 15.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1.2(표준편차 1.8)로 나타났다. 총부채는 최소 0원부터 95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9.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총부채)은 최소 5.7에서 최대 13.8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3(표준편차 -0.8)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최소 0원부터 6,060백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48.8백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한 Ln(순자산)은 최소 4.6에서 최대 15.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11.0(표준편차 -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은 최소 0.0에서 최대 53.0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7.1(표준편차 7.4)이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최소 1부터 5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57(표준편차 .8)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최소 6.0에서 최대 45.0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0.4(표준편차 5.5)로 분석되었다. 또한 왜도의 절대값(소득, 자산, 총부채, 순자산로그값)이 3미만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소득, 자산, 총부채, 순자산로그값)이 10미만으로 분석되어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3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순자산(log)은 우울감($r=-.143, p<.01$)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신체적 건강상태($r=.131, p<.01$)와 삶의 만족도($r=.264,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감은 신체적 건강상태($r=-.349, p<.01$)와 삶의 만족도($r=-.468, p<.01$)에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r=.441, p<.01$)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ajor Variables

	net assets log	depression	physical health	life satisfaction
net assets log	1			
depression	-.143**	1		
physical health	.131**	-.349**	1	
life satisfaction	.264**	-.468**	.441**	1

**p<.01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Fig. 1, Table 3과 같다. 우선 순자산(로그)은 우울감($B=-.159, p<.001$)과 삶의 만족도($B=.184,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순자산(로그) 또한 삶의 만족도($B=.184,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순자산(로그)은 신체적 건강($B=.146, p<.001$)과 삶의 만족도($B=.308,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순자산(로그)이 증가할 때,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며, 순자산(로그)이 증가할 때,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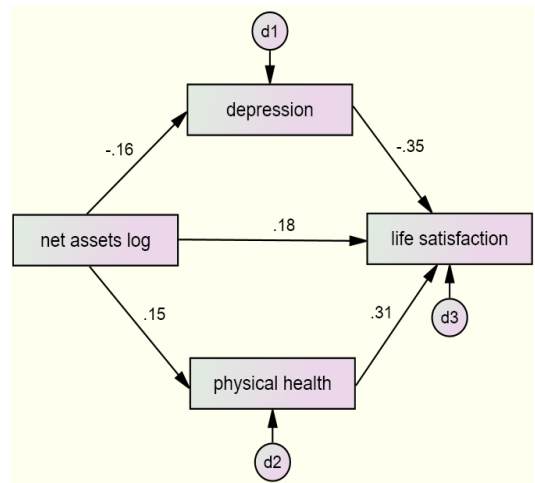


Fig. 1. Path analysis result of structural model

Table 3. Path analysis result table of structural model

		Estimate		S.E.	C.R.	P
		b	B			
depression	<--- net assets log	-.658	-.159	.090	-7.342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250	-.347	.012	-20.117	***
life satisfaction	<--- net assets log	.546	.184	.056	9.670	***
physical health	<--- net assets log	.069	.146	.010	6.727	***
life satisfaction	<--- physical health	1.955	.308	.109	17.877	***

***p<.001

순자산(로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가 Table 4이다. Sobel-test 결과 유의수준 0.5보다 유의확률이 낮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순자산(로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태에서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Mediation path	Z
net assets log →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176*
net assets log → physical health → life satisfaction	.297*

*p<.05

5.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우울감과 신체적 건강을 매개로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부(-)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산효과이론[3]에서 주장하는 자산이 갖는 효능감, 즉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적절한 자산확보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명아 외(2018)[1], 강소량, 최은영(2016)[11]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자산(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정도가 많을수록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베이비부머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은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재남(2019)[29]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즉, 적절한 자산을 준비한 베이비부

머의 경우 건강관심사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는 이들의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가구주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4]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경우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우울감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신체적 건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가구주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4]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경우 신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봄 겨를이 없는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신체적 건강 확보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의 유지를 위한 생애전환기에 적합한 건강보장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현재의 자산을 토대로 기대하는 은퇴생활과 연계된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자산이 낮은 집단이 갖게 되는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삶의 활력소를 찾고 인생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산이 낮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소득증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활력소를 회복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높이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예방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인적자본

특성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우울감 감소와 신체적 건강 유지를 통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적 지도자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과거 직업력을 기반으로 한 준시니어클럽 결성을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운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Sherrden(1991)[12] 이 주장한 자산효과이론에 근거하여 자산수준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자산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총괄하여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즉, 자산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의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자산수준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M. A. Park, S. W. Cho & S. R. Shin. (2018). The Impact of Financial Prepar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A Comparison of the Early and the Late Baby Boom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2), 133-166.
DOI : 10.15709/hswr.2018.38.2.133
- [2] J. E. Seok & G. J. Yi. (2010). Typing of Baby Boomers by Economic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for Multi-Layered Income.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Autumn Accounting Conference. 2010(2)*, 25-74.
UCI(KEPA)I410-ECN-0102-2012-330-001791386
- [3] H. H. Lee. (2017).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9-29.
DOI : 10.14400/JDC.2017.15.10.19
- [4] J. H. Kim & W. M. Kang. (201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Poor Baby Boomers and Non-Poor Baby Boom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423-443.
- [5] M. H. Kim, S. D. Chung & H. J. Park. (2014).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hysical Health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s of Korea, US and UK.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987-1005.
UCI : G704-000930.2014.16.2.032
- [6] B. T. Kim. (2018). *A Study on retirement adaptation type and Retirement asset withdrawal strategy of Baby Boome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7] I. U. Son & S. J. Won. (2019). Effect of Income on Depression of Korean Babyboomers: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Gende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9(7), 587-597.
DOI : 10.5392/JKCA.2019.19.07.587
- [8] H. G. Shin. (2014). Effect of Baby Boomers' Economic Status on Quality of Life : Mediated by Old Age Preparation and Moderated by Employment, Birth Cohort. *SOCIAL SCIENCE RESEARCH*. 30(4), 161-183.
UCI : G704-001638.2014.30.4.017
- [9] D. J. Choi, M. S. Lee & J. Y. Lee. (2014). Are those preparations for ageing and self-efficacy influential to the baby boomers happiness?.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42, 161-185.
UCI : G704-002139.2014.42..001
- [10] S. D. Chung & M. J. Koo. (20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305-324.
DOI : 10.21194/kjgsw.52.201106.305
- [11] S. R. Kang & E. Y. Choi. (2016).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its Previous and Next Generations -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Household Asset and Income on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2(2), 1-30.
UCI : G704-000662.2016.32.2.006
- [12] M. Sherraden.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 [13] S. L. Kim, K. H. Ju & S. D. Chung. (2018). The Effects of Incom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65, 103-136.
DOI : 10.15300/jcw.2018.65.2.103
- [14] D. A. Miller. (1981). The Sandwich Generation : Adult Children pf the Aging. *Social Work*, 26, 419-423.
- [15] J. C. Park. (2014). Financial Preparations for Aging of BabyBoomers and Pre-BabyBoom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3, 309-335.
DOI : 10.21194/kjgsw..63.201403.309
- [16] I. J. Rha, C. Y. Lim & S. H. Park. (2008). Preparing for the Retiring Baby Boom Generation(RBBG) in Korea: from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2, 151-174.
DOI : 10.21194/kjgsw..42.200812.151
- [17] S. K. Lee. (2010). Baby Boomers' Health and Labor Capacity. *Labor Review*, 63, 37-47.
- [18] S. D. Chung & M. J. Koo. (20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305-324.

- DOI : 10.21194/kjgsw..52.201106.305
- [19] B. L. Neugarten, R. J. Havighurst & S. S. Tobin.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1), 134-143.
DOI : 10.1093/geronj/16.2.
- [20] H. K. Shin. (2008). Life Cycle Job Characteristics of Korean Middle and Elderly People. *Labor Review*, 45, 62-78.
- [21] J. Y. An, K. An, L. O'connor & S. Wexler. (2008).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elder Korean women: Focus on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9(2), 151-160.
DOI : 10.1177/1043659607313070
- [22] D. Y. Won, J. H. Noh & Y. S. Shin. (2017). Assets of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s: Mediating Effects of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with their Children Not Living Togeth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37(3), 687-705.
- [23] M. Zhan. (2006). Assets,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28(8), 961-975.
DOI: 10.1016/j.childyouth.2005.10.008
- [24] S. O. Kang & C. K. Han. (2018). A Study on Effects of Youth Householder's Assets on Life Satisfaction: Test of a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4), 195-220.
DOI : 10.16999/kasws.2018.49.4.195
- [25] J. Y. Kim & C. K. Han. (2017). The Effect of Disability of Household Head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Asset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9(2), 247-269.
DOI :10.15707/disem.2016.26.3.001
- [26] D. B. Kim, E. Y. Park & S. U. Kim. (2019). The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by the Asset Type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36(3), 471-494, 2009.
DOI : 10.15855/swp.2009.36.3.471
- [27] D. H Lee. (2010). The Effects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s Health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1), 93-108.
UCI : G704-000573.2010.30.1.007
- [28] S. M. Park, J. A. Son & S. W. Bae. (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prospectiv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1-24.
UCI : G704-001638.2009.25.3.010
- [29] J. N. Yoo. (2019).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69, 183-200.
DOI : 10.15300/jcw.2019.69.2.183
- [30]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2014). *Fifth National Elderly Guarantee Panel Data*.
- [31]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urement*, 1, 385-401.
DOI : 10.1177/014662167700100306

- [32] M. J. Cho & K.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 [33] R. B. Kline. (2013). *Beyond significance testing statistics reform in the behaviora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4136-000

이 형 하(Hyoung-Ha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hhlee62@kwu.ac.kr